존 오웬 『성경의 신적 기원·권위·자증하는 빛·능력에 관하여』(1659, 굴드판 전집 16권 1862, 영문)

오웬 · 1장 성경의 신적 기원이 권위의 유일한 토대

존 오웬, 『성경의 신적 기원·권위·자증하는 빛·능력에 관하여』(1659), 1장. 굴드판 전집 16권(1862). 본문에 300~305쪽 쪽 표시가 보이며, 장이 시작하는 쪽은 확인이 필요하다.

🧭 흐름 한눈에

오웬은 모두가 인정하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성경의 권위는 오직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신적 기원)에 달려 있다. 그래서 먼저 구약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밝힌다. 하나님은 선지자들 “안에서” 먼저 말씀하셨고, 그다음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자들은 연주자 손에 들린 악기처럼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 이어서 베드로후서 1:20-21을 자세히 풀며 두 가지를 보인다. 하나님이 영감하신 것은 교리만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자체이고, 그 기록은 하나님의 섭리로 가장 작은 획까지 보존되었다. 여기서 영감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자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쓰게 하신 일을 말한다. 오웬은 이 대목에서 히브리어 원문이 손상되었다는 카펠루스의 주장도 반박한다. 마지막으로 신약은 아들이 직접 말씀하신 데서 시작되었으니 같은 권위에 특권까지 더해진다고 말한다. 결론은 이렇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지닌다.

📜 절별 정리

📜 1. 성경의 신적 기원이 권위의 유일한 토대

오웬은 논쟁 상대도 받아들일 만한 출발점을 놓는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고백한다. 성경 “자체 안의” 권위 전부는 오직 그것이

놓이면 뒤따르는 논증들을 “그것들 자체의 원리에서” 끌어낼 수 있다. 오웬은 근거를 많이 늘어놓기보다 무게 있는 근거를 내놓겠다고 밝힌다. 이 장에서 로마 교회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는다. 다만 “자체 안의 권위”라는 표현에는 교회 같은 바깥의 보증이 아니라는 뜻이 담겨 있다. 책 전체가 로마 교회를 상대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이 표현의 무게가 보인다.

1. 권위는 오직 신적 기원에서 나온다
2. 이것은 성경을 인정하는 모두의 고백이다
3. 기원을 먼저 밝혀야 권위를 논할 수 있다
4. 근거는 개수보다 무게가 중요하다

> **(이 절에는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 장 전체의 논제를 세우는 도입부

“성경 자체의 모든 권위는 오직 그것의 신적 기원에 달려 있다.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든 사람이 고백하는 바다.”

📜 2. 구약 성경의 기원 — 하나님이 선지자들 "안에서" 말씀하셨다

오웬의 출발 구절은 히브리서 1:1이다. “옛적에 선지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모세 때부터 에스라와 '대회당 사람들'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오웬은 그 기간을 약 천 년으로 보고, 정경이 그 무렵 매듭지어졌다고 본다. 정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 성경에 들어간 책들의 목록이다. 에스라 시대에 정경이 매듭지어졌다는 것은 당시 유대 전통을 따른 오웬의 견해다.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졌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회였다. 크리소스토무스와 테오필락투스 같은 옛 해석자들은 “안에서”를 “통하여”와 같은 뜻으로 읽었다. 누가복음 1:70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처럼 말이다. 오웬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들에게(그들 안에서) 말씀하셨고, 그다음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이것을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늘에서

계시의 여러 방식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그것들은 “방식”의 문제일 뿐, 묻고 있는 “그것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1. 구약은 하나님이 선지자 안에서 하신 말씀
2. 순서: 먼저 그들 안에서, 그다음 그들을 통해
3. 모세부터 에스라까지 약 천 년에 걸침
4. 유대 교회는 그 말씀을 맡은 관리인
5. 계시 방식의 차이는 본질이 아니다

> **히브리서 1:1**
> “선지자들 안에서 말씀하셨다” — 구약 기원의 핵심 진술
>
>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 **로마서 3:2**
>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 말씀의 관리자
>
>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 **로마서 9:4**
> 이스라엘이 받은 특권들 — 말씀이 유대인 가운데만 주어짐
>
>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 **누가복음 1:70**
>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 '통하여'라는 읽기의 근거
>
>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 **시편 45:1**
> “내 혀는 서기관의 붓” — 하나님이 주셔서 혀가 붓이 됨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시편 16편 등의 표제 '믹담'

오웬은 “다윗에게 주신 금 같은 시”, 곧 주께로부터 온 시로 읽음(편수는 밝히지 않음)

출애굽기 33:11, 신명기 34:10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 독특한 계시 방식

출애굽기 33:11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신명기 34:10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민수기 12:8

“입과 입으로” 하신 말씀 — 모세의 특별함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히브리서 1:1-3, 요한복음 1:17-18

아들이 “아버지 품에서” 하신 계시 — 모세보다 높임

히브리서 1:1-3 1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17-18 17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 [illegible]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 안에서 말씀하셨다."

📜 3. 계시의 독특한 방식 — 연주자 손의 악기

"선지자 안에서 말씀하셨다"는 데서 오웬은 두 가지를 끌어낸다. 첫째, 선지자들이 전한 율법, 교리, 가르침, 역사,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머리로 지어내거나, 추론으로 만들거나, 들은 것을 기억해 둔 것이 아니다. 미리 이해한 것도 아니었다(베드로전서 1:10-11). 모두 하나님에게서 직접 왔다.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의 이성은 수동적으로만 함께했다. 받는 일 자체가 그들이 애써 수행한 순종의 행위는 아니었다는 뜻이다. 둘째, 그들은 몸에 밴 지식이나 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는 대로만 움직였다. 그래서 그들의 혀와 손은 숙련된 서기관 손에 들린 붓처럼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선지자들이 공부를 안 한 것은 아니다. 신자로서 그들은 자기 안의 그리스도의 영이 가리킨 것을 "부지런히 연구"했다. 서로의 예언서를 읽었고, 우리처럼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배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었다. 하지만 말씀을 '받는' 일에서는 연구나 묵상으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아모스 7:15).

말씀이 올 때는 하나님의 위엄이 함께해 그들을 두렵게 했고 몸까지 상하게 했다. 이런 두려움은 구약의 '훈육 방식'에 속한 것이다. 오웬은 이교의 신탁이 이 두려움을 흉내 낸 것을 사탄의 모방이라 부른다. 델포이의 삼발이나 '배 속에서 말하는' 점쟁이들이 그 예다. 신약에서는 계시가 똑같이 직접적이었지만 더 큰 자유와 영광 가운데 주어졌다. 말씀은 일단 오면 숨길 수 없었다. 단지 들은 내용의 취지만이 아니라 받은 그 낱말들을 그대로 선포해야 했다. 말씀은 속에서 타는 불 같아서 내놓지 않으면 그들을 삼켰다. 요나가 숨으려 했지만 헛수고였다.

1. 내용은 지어낸 것도, 기억한 것도 아님
2. 받을 때 이성은 수동적으로만 함께함

4. 구약은 두려움, 신약은 자유와 영광 속에서

5. 받은 낱말 그대로 전해야 했다

베드로전서 1:10-11

선지자들도 자기 안의 그리스도의 영이 가리킨 것을 연구함 — 미리 알고 쓴 게 아님

10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민수기 24:3-4

눈이 열린 환상을 보고도 다 깨닫지는 못함

3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브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4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다니엘 9:2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연구함 — 선지자들도 서로의 글을 공부함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시편 119:104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음 — 신자로서는 우리와 같은 길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모스 7:15

양 떼를 따르던 아모스를 하나님이 데려다 보내심 — 연구로 얻은 계시가 아님

양 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에스겔 1:3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였다” — 히브리어로 '있었다'를 겹쳐 쓴 강조

갈대아 땅 그발 강 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 3:14(원문은 '14절'로만 표기, 문맥상 추정)

영이 그에게 들어와 말씀이 실제로 자리 잡음

에스겔 3:14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 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하박국 3:16

말씀 앞에서 떨리는 두려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다니엘 8:27

계시가 몸까지 상하게 함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히브리서 12:18-21

시내산의 두려움 — 구약 훈육 방식의 특징

18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19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20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칠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21]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장 전체)

신약의 계시는 더 큰 자유와 영광 가운데

고린도후서 3장 [1]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부치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2]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3]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4]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은 확신이 있으니 [5]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6]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

히브리서 9:8, 10:19-20, 12:22-24

그리스도로 열린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

히브리서 9:8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히브리서 10:19-20 [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2:22-24 [22]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24]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마태복음 10:20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에스겔 2:8-10, 3:3, 요한계시록 10:9-11

두루마리를 먹고 예언함 —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받아 전함

에스겔 2:8-10 8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 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9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 3:3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요한계시록 10:9-11 9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 같이 달리라 하거늘 10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 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1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사도행전 4:20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일반 설교 — 그와 달리 선지자는 낱말 그대로 전해야 함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시편 39:3, 예레미야 20:9

말씀이 속에서 불처럼 타오름

시편 39:3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예레미야 20:9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 3:8, 7:15-16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예언하지 않을 수 없음

아모스 3:8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모스 7:15-16 15 양 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16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요나 1:3(오웬은 장절 없이 요나 이야기만 언급)

말씀을 숨기려는 시도는 헛됨

요나 1:3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삯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들은 연주하는 이의 손과 뜻과 솜씨에 따라 소리를 내는 악기와 같았다."

"그들의 혀와 손은, 숙련된 서기관 손에 들린 붓만큼도 그들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오웬은 지금까지의 요점을 이렇게 묶는다. 말씀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어떤 매개도 섞이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왔다. 가장 뛰어난 사람의 지혜나 기억도 그런 매개가 될 수 없다. 이것을 확증하려고 베드로후서 1:20-21을 꺼낸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성경의 예언”, 곧 '기록된' 예언이다. 당시 유대인 사이에는 기록된 말씀과 겨루려는 전통들이 있었다. 이것들은 곧 '구전 율법'이라 불리며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주장했다. 베드로는 이를 은근히 정죄한다. 신약에서 “성경(그라페)”이라는 말은 쉰 번 넘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가리킨다. 디모데후서 3:16도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숨으로 된 것이라고 말한다. 교리만이 아니라 “기록된 교리”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교리만큼이나 기록을 지키는 일에도 마음을 쓰셨다. 섭리는 하나님이 세상과 역사를 붙들고 다스리시는 일이다. 기록은 다른 모든 수단이 교리를 지키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난 뒤 하나님이 영원한 뜻으로 마련하신 것이다. 사탄도 진리만큼 책 자체를 미워했다. 구약 시대의 안티오쿠스(안티오쿠스 4세로 알려짐)와 신약 시대 박해 황제들이 그 증거다. 옛 교회에서는 '책을 넘겨준 자'가 '신앙을 부인한 자'와 똑같이 무거운 죄인이었다. 성경을 “종이 문서, 양피지”라고 깎아내린 코스테루스의 비난은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돌아간다. 코스테루스는 16세기 예수회 논쟁가로 알려져 있다. 우리에게 모세와 사도들의 자필본은 없다. 자필본은 저자가 처음 직접 쓴 원본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사본들은 원본에 있던 “한 점 한 획”을 모두 담고 있다고 오웬은 말한다.

1. 말씀에 사람의 오류 가능한 매개가 안 섞임
2. 영감된 것은 '기록된 말씀' 그 자체
3. 섭리는 교리뿐 아니라 기록도 지킨다
4. 사탄은 진리만큼 책도 공격했다
5. 자필본은 없지만 사본이 모든 획을 담음

> **베드로후서 1:20-21**
> 이 장의 중심 본문 — 예언이 어디서 왔는가
>
> 20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베드로후서 1:19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기록된 예언

>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역대하 21:12

엘리야가 보낸 '글' — 구약에서도 기록이 예언의 말씀을 가리킴

>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디모데후서 3:16

하나님의 숨으로 된 것은 '기록된 것' 자체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마태복음 5:18

(각주)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음 — 획까지 보존된다는 근거

>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어떤 매개도 조금도 섞이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나왔다."

"우리에게 모세와 사도들의 자필본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사본들은 그 안에 있던 한 점 한 획을 다 담고 있다."

📜 5. 카펠루스의 이문 견해 검토

오웬은 현재 구약 사본에 이문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문은 사본마다 글자가 조금씩 다르게 적힌 곳을 말한다. 그 증거로 여러 가지를 든다. 여백에 적힌 '읽는 대로'와 본문에 적힌 '쓰인 대로'의 차이(크레·크티브)가 있다. 서기관들이 열여덟 곳을 손본 '서기관의 교정'과 다섯 곳의 글자 하나를 덜어 낸 '서기관의 생략'이 있다. 10세기 무렵 마소라 학자인 벤 아셰르와 벤 납달리의 차이, 동방·서방 유대인의 차이도 있다. 이런 차이들은 마소라 주석이 붙은 대형 성경 끝에 모여 있다. 마소라는 유대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 본문을 정확히 전하려고 붙인 주석 체계다. 그래도 오웬은 이렇게 단언한다.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모든 글자와 획까지 부패 없이 보존되었다. 차이가 있는 곳은 늘 덜 중요한, 사실상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다. 하나님은 전체를 온전히 지키시면서 이 작은 차이는 허락하셨다. 우리가 말씀을 더 부지런히 살피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어서 소뮈르의 학자 카펠루스를 반박한다. 그는 『거룩한 비평』(1650 무렵)으로 알려져 있다. 카펠루스는 불확실한 추측과 부패한 번역을 근거로 현재 히브리어 사본이 옛 사본과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70인역에 기댔다. 70인역은 구약을 헬라어로 옮긴 고대 번역이다. 오웬은 이 번역이 수천 곳에서 원문과 어긋난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다. 그렇게 더러운 물줄기로 샘을 씻겠다는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1,826개의 이문을 내놓고 더 많다고 암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본다. 카펠루스는 “구원에 필요한 교리의 실체는 모든 사본과 번역에 보존되어 있다”는 말로 비판을 피하려 했다. 이 생각은 다른 이들도 받아들였다. 오웬의 각주는 (월턴의) 다국어 대역 성경 서문을 가리킨다. 오웬은 이 위로가 번역에는 맞다고 인정한다. 가장 나쁜 번역에 다른 모든 번역의 오류를 더해도 구원에 필요한 진리는 충분히 증언된다. 그러나 원문을 그런 변명이 필요한 처지로 끌어내리는 것은 다르다. 사본 사이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개신교 신학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오웬은 더 깊은 이유도 댄다. 유클리드의 증명은 필사가 틀려도 고칠 수 있다. 그것이 다루는 대상이 언제나 같고, 누구나 그 대상을 직접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수한 계시는 그 기록 말고는 알 길도, 판단할 기준도 없다. 원문이 부패했다고 가정하면 바로잡을 수단이 없다. 그러니 교리만 보존되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대상이다. 이 주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다고 한다. 같은 해 함께 나온 것으로 알려진 히브리어·헬라어 본문의 순전성에 관한 논고가 그것으로 보인다.

1. 이문은 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은 곳뿐
2. 하나님은 부지런히 살피라고 차이를 허락하심
3. 70인역으로 원문 고치기는 더러운 물로 샘 씻기
4. “교리 실체만 보존”은 번역엔 맞지만 원문엔 아님
5. 계시는 기록 밖에 바로잡을 기준이 없다

> **마태복음 5:18**
> (4절 각주에서 이어짐) 일점일획까지 하나님의 관심 — “모든 획이 우리의 관심 대상”
>
>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부패한 물줄기가 샘을 깨끗이 하는 데 알맞은 수단이라 여겨지다니 이상한 일이다.”

“교리가 온전히 보존되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의 모든 획과 점이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이다.”

📜 6. 성경은 '사사로운 풀이'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1:20으로 돌아간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운 풀이(에필뤼시스)에서 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이 낱말을 '에펠뤼시스'로 고쳐 읽는다. 헤시키오스의 사전에 따르면 그 말은 '불어넣음, 영감, 속에서 잉태함'이라는 뜻이다. 오웬은 칼뱅과 그로티우스가 이 쪽이라고 전한다. 그렇게 읽으면 뜻은 오웬이 앞서 말한 것과 같아진다. 선지자들의 말은 그들의 사사로운 생각이나 스스로 지어낸

낱말인 '에필뤼시스'를 그대로 두자고 했고, 오웬은 그것이 옳다고 본다. 이 자리에는 이문이라 할 만한 근거가 없다. 스테파누스판의 한 사본이 다른 글자로 읽었지만 그것은 명백한 실수다. 실수는 이문 자격이 없다. 오웬은 사람들이 대담한 추측으로 원문을 고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갈지 이제야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카메로는 이 낱말을 '계시로 이루어지는 풀이'라는 뜻으로 보았다. 그 근거로 70인역의 요셉 꿈 해석(창세기 40장)을 들었는데, 오웬은 그 장에 이 낱말이 실제로는 쓰이지 않는다고 바로잡는다. 그래도 세 사람 모두 결론은 같다. 이 표현은 우리가 선지서를 해석하는 일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은 방식을 말한다.

1. 20절은 '예언이 어떻게 났는가'의 문제
2. 본문 글자를 고치는 추측에는 반대
3. 사본의 명백한 실수는 이문이 아니다
4. 칼뱅·그로티우스·카메로 모두 기원의 문제로 읽음

> **베드로후서 1:20**
> '사사로운 풀이'의 뜻을 따지는 대상 본문
>
>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 **창세기 40장(장 전체)**
> 카메로가 든 예(요셉의 꿈 해석) — 오웬은 그 낱말이 실제로 없다고 지적
>
> **창세기 40장** 1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2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3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4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5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6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

“성경 원문을 고치려는 사람들의 대담한 추측이 어디까지 갈지, 우리는 조금 늦게야 보기 시작한다.”

📜 7. 그 표현의 참뜻

오웬은 문법과 흐름으로 자기 읽기를 입증한다. 영어 번역처럼 “성경의 예언은 우리가 사사로이 해석할 것이 아니다”로 읽으면 말이 거의 되지 않는다. 우리말 개역개정의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도 비슷하게 읽힌다. 오웬이 드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나다/되다(기네타이)'는 “성경의 예언”과 이어지며, 말씀이 '처음 나온 일'을 가리킨다. 나중에 우리가 뜻을 헤아리는 일이 아니다. 둘째, 21절은 “왜냐하면”으로 20절의 이유를 대고, “오직”으로 반대되는 것을 내세운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로이 해석하면 안 된다”에 대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는 이유가 될 수 없다. 기원의 이야기로 읽어야 앞뒤가 맞는다.

그래서 사도의 뜻은 이렇다. 기록된 예언은 사람들이 상상한 열광이 아니다. 그들 자신의 생각에서 난 것도, 선지자의 이해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풀어낸 것도 아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의 '알다(기노스코)'는 단지 아는 것을 넘어 판단하고 인정하는 것까지 뜻한다. 이것은 다른 무엇을 믿든 먼저 받아들여야 할 원리다. 더 따지지 않고 승복할 원리다. 그 승복의 근거를 밝히는 것이 이 책 나머지 부분의 일이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에서 '났다(에네크테)'는 '가져오다(페로)'의 수동형이다. 그냥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 안에 '가져와졌다'는 뜻이다. 사람의 뜻을 부정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긍정이 들어 있다. 18절에서 산 위의 예수께 하늘 음성이 '왔다'고 할 때도 같은 낱말이 쓰였다. 이렇게 말씀은 그들에게 올 때는 '여호와의 음성'이었다. 그들이 말하고 기록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에서 흘러나온 첫 샘이다.

1. '나다'는 처음 나온 일, 우리의 해석이 아님
2. 21절의 '왜냐하면'·'오직'과 맞물려야 한다
3. '알라'는 인정하고 승복하라는 뜻
4. 성경의 기원은 따지기 전에 받는 첫 원리
5.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가져와졌다'

> **베드로후서 1:20-21**
> 문법과 흐름(왜냐하면·오직)으로 '기원' 해석을 입증

[20]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후서 1:17-18

같은 낱말 — 하늘에서 '온' 음성처럼 말씀이 위에서 옴

[17]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에스겔 1:3

말씀이 선지자 안에 실제로 '있게 됨'

갈대아 땅 그발 강 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창세기 3:8

'여호와의 음성' — 선지자에게 오는 단계의 말씀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에스겔 2:8-10, 3:3

(앞의 예를 다시 가리킴) 두루마리를 먼저 먹고 예언함

에스겔 2:8-10 [8]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 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9]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 **에스겔 3:3**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것은 다른 무엇이든 믿으려는 모든 사람이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원리다."

"하나님은 본성의 순서로 볼 때,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그들에게 가져와 그들 안에서 말씀하셨다."

📜 8. 가장 작은 획까지 전부 하나님에게서

21절 끝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말하였다"는 전달 과정을 완성한다. 말씀이 선지자에게 온 뒤에 그것을 정리하고 배열하고 내놓는 일이 그들의 이해력이나 지혜나 기억에 맡겨지지 않았다. 그들은 성령에게 '실려 가듯' 움직였다. 받은 것을 모두, 받은 것만, 한 획까지 말하고 기록했다. 받은 내용에 맞는 낱말을 스스로 지어낸 것도 아니다. 다만 오웬은 중요한 단서를 붙인다. 낱말을 고를 때 그들의 마음과 이해력이 쓰였다. 그래서 성경 저자들 사이에 표현 방식의 차이가 생긴다. 전도서 12:10이 말하는 "아름다운(선택한) 말"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인도받았기에, 그 말들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가르친 교리만 진리가 아니라 그 교리를 담은 낱말도 하나님에게서 온 진리의 말씀이다. 결론은 이렇다. 선지자의 마음과 혀가 낱말을 받고 드러내는 수동적 도구로 쓰인 것을 인정하더라도, 기록된 말씀의 모든 꼭짓점은 똑같이 신적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음성만큼 직접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러므로 그 음성과 같은 권위를 그 자체로, 또 우리에게 지닌다.

1. 성령에 이끌려 받은 것 전부, 그것만 기록
2. 낱말을 스스로 지어내지 않았다

4. 그래도 그 낱말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

5. 모든 획이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권위

> **베드로후서 1:21**
> “성령에 이끌려” — 기록의 마지막 단계까지 성령이 주도
>
>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 **전도서 12:10**
> “선택한 말”, “정직하게 기록한 진리의 말씀” — 문체 차이와 진리성을 함께 설명
>
>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 **요한복음 17:17**
> “주의 말씀은 진리” — 교리뿐 아니라 말씀 자체가 진리
>
>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은 배운 것에 맞는 낱말을 스스로 지어내지 않았다. 받은 낱말을 표현했을 뿐이다.”

“기록된 말씀의 모든 꼭짓점은 똑같이 신적이며,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하신 음성만큼 직접 하나님에게서 왔다.”

📜 9. 신약 성경과 그 특별한 특권

구약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은 신약에도 해당한다. 게다가 신약에는 더 나은 특권이

그린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출애굽기 20장) 친히 손가락으로 기록을 시작하셨다(출애굽기 31:18). 그 뒤 이어지는 글들을 기록하라고 명하시거나 승인하셨고, 성경 곳곳이 기록된 말씀을 지키고 읽고 상고하라고 한다. 마지막에는 직접 계시의 끝을 책에 기록하라고 명하셨다(요한계시록 1:11).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 전체를 기록으로 주셨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헛되고 어리석고 느슨해서 빠질 혼란과 어둠과 불확실함을 막는 자비롭고 든든한 구제책이다. 오웬은 이렇게 맺는다. 이 기원을 우리는 성경 자체에서 밝혔다. 이 기원이 성경 권위의 바탕이다. 교리도, 그 교리를 담은 낱말도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도덕적 권위를 지닌다.

1. 신약은 아들이 친히 하신 말씀에서 시작
2.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기록을 시작하심
3. 기록하라 명하고 마지막도 기록으로 맺음
4. 기록은 인간 마음의 혼란을 막는 자비
5. 성경이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 **히브리서 2:3**
> 신약은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으로 시작 — 신약의 특권
>
>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 **히브리서 1:2**
> 마지막 날에 “아들 안에서” 말씀하심
>
>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 **출애굽기 20장(장 전체)**
>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심(십계명)
>
> 출애굽기 20장 [1]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나는 너를 애굽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

출애굽기 31:18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돌판 — 기록의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신명기 31:12, 여호수아 23:6, 열왕기상 2:3, 열왕기하 14:6, 17:13, 역대상 22:13, 역대하 25:4

기록된 율법을 듣고 지키라 — 하나님이 기록을 정하고 승인하심

신명기 31:12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여호수아 23:6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열왕기상 2:3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열왕기하 14:6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열왕기하 17:13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역대상 22:13 그 때에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역대하 25:4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에스겔 2:8-10, 하박국 2:2

두루마리, “이 묵시를 기록하라” — 계시를 기록하게 하심

에스겔 2:8-10 8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 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9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박국 2:2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누가복음 16:29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들을지니라” — 기록으로 충분함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요한복음 5:39, 20:31

성경을 상고하라, 믿게 하려고 기록함

요한복음 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20: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17:11

베뢰아 사람들이 성경을 날마다 상고함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요한계시록 1:11

직접 계시의 마지막을 책에 기록하라 명하심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도덕적 권위를 입고 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신적 기원

성경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처음 나왔다는 것. 오웬은 이것이 권위의 유일한 토대라고 본다.

계시

하나님이 사람이 스스로 알 수 없는 자신의 뜻을 알려 주시는 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자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하고 쓰게 하신 일. 디모데후서 3:16의 “하나님의 숨으로 된”에서 온 말이다.

자증(自證)
성경이 교회나 다른 보증 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낸다는 것. 이 책 제목의 “자증하는 빛”이고, 뒤의 장들에서 본격적으로 다룬다.

정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 성경에 들어간 책들의 목록.

자필본과 사본
자필본은 저자가 처음 직접 쓴 원본이고, 사본은 그것을 베껴 쓴 것이다. 오웬은 자필본이 없어도 사본이 모든 획을 담는다고 본다.

이문
사본마다 글자가 조금씩 다르게 적힌 곳.

크티브·크레
히브리어 성경에서 본문에 '쓰인 대로'(크티브)와 여백에 적은 '읽는 대로'(크레)가 다른 경우.

마소라
중세 유대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 본문을 정확히 전하려고 붙인 주석 체계.

70인역
구약을 헬라어로 옮긴 고대 번역. 오웬은 이 번역이 원문과 수천 곳에서 어긋난다고 본다.

열광주의
성경 밖에서 성령을 직접 받았다며 자기 속의 느낌을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는 태도.

섭리
하나님이 세상과 역사를 붙들고 다스리시는 일. 여기서는 성경 본문을 지키시는 일을 말한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성경 권위의 유일한 토대는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이다.
- 하나님은 선지자들 안에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들은 받은 것을 모두, 그것만, 한 획까지 전했다.
- 영감된 것은 교리만이 아니라 기록된 낱말 자체이며, 하나님은 섭리로 그 기록을 지키셨다.
- 신약은 아들이 친히 하신 말씀에서 시작되어 같은 권위에 특권이 더해진다.
-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11편 · 권위는 어디서 오나 ·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